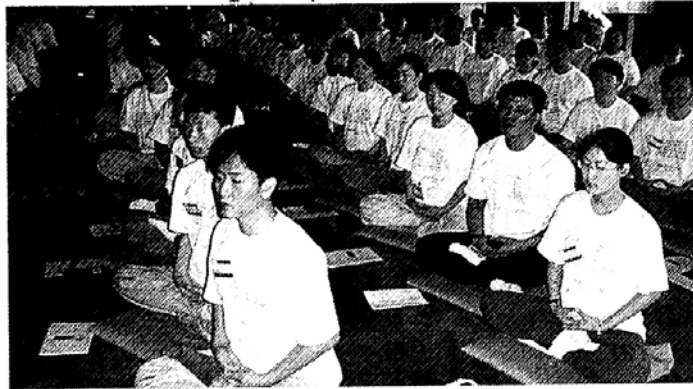


# “인터넷 인연 불자됐어요”

PC통신 유니텔 회원인 서현숙(36)씨는 평소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어디서,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불교동호회인 '부처님나라'를 알게되어 그곳의 참선반 게시판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었고 지금은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참선반 도반들과 함께 참선을 배우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초발심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PC통신 유니텔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접한 서현숙씨(두번째부터 첫번째)가 송광사 하계 수련회 때 참선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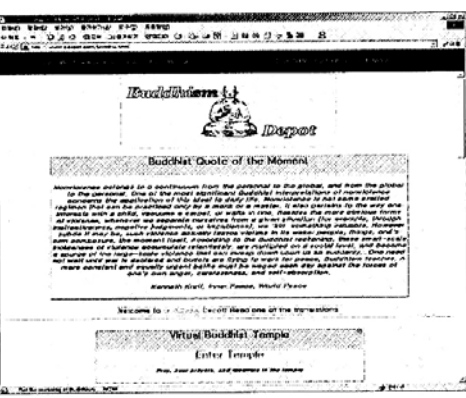
## 교리, 수행법 등 배우다 오프라인 신행 활동 속제 위해 사이트 뒤지다 佛家 입문 하기도 초발심자 위해 계층·수준별 콘텐츠 개발 시급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이재영(26)씨는 최근 교양과목 리포트 쓰기 위해 불교관련 사이트를 서핑하다 불교에 대해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불교기초교리 강좌사이트에서 불교강연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네티즌들이 검색엔진이나 불교관련 사이트에서 기초교리, 경전 등을 배워 초발심을 내고 참다운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전통문화, 문화재 등과 관련된 과제를 불교관련사이트를 통해 해결, 자연

스럽게 불교를 알게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된다.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현실세계와 달리 익명성과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 수 있고 사이버 불교신행단체나 사찰의 일주문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 새로운 초발심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에서 불교를 처음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평소 가졌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를 교리 등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다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커

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법회, 수련회 등 오프라인 모임으로 신행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이트나 회원이 적은 커뮤니티의 경우는 교리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의 경험도 다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기본예절 등 불교기초소양이 부족한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 신행활동을 시작한 네티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선임연구원은 '98년 천리안 불교동호회 대표시상으로 활동할 당시 전체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입동기를 조사해본 결과, 50% 이상이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고 싶어서 가입했다는 초발심자였다'며 "인터넷을 매개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계층별, 수준별 불교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고 종단차원에서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매일 업데이트 되는 법구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부디즘 디포우.

### 부디즘 디포우

불교정보창고부디즘 디포우(<http://www.wadepot.com/buddha.html>)는 팔리어 경전 <법구경>을 영역해서 온라인으

### 법구경영역 온라인 서비스

로 서비스하는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첫 화면에서 불교 인용문이 매일 업데이트 되어 볼음을 전파하는 이 사이트의 선풍

장 역할을 한다. 부디즘 디포우는 불교매거진, 사이버 법당, 불교 토론포럼 및 채팅, 불교에 대한 소개, 불경, 불교도, 만화, 유머를 소개한 불교도 유머, 오디오 도서관, 불교 예술 갤러리, 온라인 서점, 불사 안내, 불교 용어집, 불교자료실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명상하는 불교도의 집도 있다. 허공, 연꽃향기마을  
◎ 정어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하루 하루 생활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국정토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매진하도록 합니다. 목탁소리, 여어선원 강지연 기자

### IT만신

#### 정보보호 문화운동 재개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정보보호 선도국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정보보호실천협의회와 함께 대대적인 정보보호 문화운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보보호 문화운동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내 컴퓨터 내가 지키기 캠페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은 올해 말 확정된다.

#### 장애인·고령층 정보 격차

정보통신부는 지난 6. 7월 두달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50세 이상 고령층의 컴퓨터 이용률이 각각 24.1%, 11.4%를 기록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각각 13.1%, 1.2% 높아진 것이다. 인터넷 이용률은 장애인의 경우 22.4%, 고령층은 9.1%로 조사돼 2000년에 비해 각각 15.5%,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게시판 엿보기

◎ 법우님들! 무리하지 않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3000배를 마치고 새벽공기의 상쾌함을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솟구치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 윤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아야 한다. 부처는 곧 이 마음인데 마음을 어찌 면해서 찾으랴. 육신은 헛것이거서 생과 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허공, 연꽃향기마을  
◎ 정어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하루 하루 생활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국정토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매진하도록 합니다. 목탁소리, 여어선원 강지연 기자

### 우리절 digital cyber 불사

#### 원경사

경기도 이천 원경사주지 일행은 불사 중이다. 일주문을 새롭게 단장하고 남골담과 비각 등도 꾸미고 있다. 이번 아니라 남골담을 비롯해 무료양로원, 불교유치원, 불자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과 대웅전소를 지어 불자교육과 복지도량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장기 불사를 하고 있다. 원경사의 불사는 건축불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에도 눈을 돌려 사찰 전

덕분에 한두시간만에 끝내게 된 것. 탄탄한 전산관리 시스템은 원경사의 자랑이다. 다른 절에서도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져 종무관리에 드는 인력을 포교 및 수행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일봉스님의 생각이다. 인터넷에 원경사 홈페이지(<http://www.wonkyungsa.com>)를 개설한 것은 2년여 전. 원경사 홈페이지는 사찰 유래에서부터 원경사 소개, 주변 명소, 남골담 안내, 사진으로 가보는 원경사, 게시판 등 불자들의 관심을 끌기 아끼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인터넷을 통해 원경사를 알고 찾

## 사찰 전산화·홈페이지 등 인터넷 불사 중 사이버 법당·불교 교양대학 등 개설 계획

산화 작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터넷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경사에서 처음 종무관리를 컴퓨터로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 전. 대부분의 사찰이 전산관리를 생략조차하지 않고 있을 때 원경사는 자체적으로 종무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신도관리를 시작했다. 컴퓨터 쪽으로 빨리 눈을 돌린 까닭에 종무관리가 전산화 되면서 관련 인력 소모가 줄었다. 신도들에게 염서 한장 발송하려 해도 몇 사람이 2, 3일간 꼬박 하던 작업을 전산화

아오는 이들 뿐 아니라 흠의 오자 수정까지 해줄 정도로 애정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일봉스님의 사이버 불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법당과 인터넷 불교교양대학 등을 개설하는 계획도 꼼꼼히 세우고 있다. 인터넷을 무한포교자원으로 보는 스님의 생각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포교일선에서 앞서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강지연 기자 ggang@buddhania.com



### 남골담 인터넷 신청 증가 사찰 홍보·포교 중요 수단

주지 일봉스님

"사이버 법당 운영에 관심이 큼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차차 준비해나가고 싶습니다."

강고 있다. 포교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7월 남골담을 시작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이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은 절에서도 포교와 홍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90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단. 90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 일주일만에 나-노 파동명상 요법을 알면 당신도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명상전생 특강 내용

- (1) 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濟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加)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회행 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 (3) 원격 제령 명상 제 3자가 명상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 (4) 명상 파동요법 사람이거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加)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개강 일시**

- ◆ 개강: 2002년 11월 10일(일요일) 일주일 과정
-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 장소: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 ◆ 과정 ※ 전문반 - 150만원  
※ 평생연구반 - 300만원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